



포스코건설, 직원간 따뜻한 온정(溫情)

포스코건설(사장 : 한수양) 임직원들의 훈훈한 미담이 최근 화제다.

지난달 28일 포스코건설 게시판에 미혼의 여직원이 간경화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위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직원이 딱한 사정에 처한 옆자리 동료들을 위해 회사 임직원에게 도움을 호소했던 것이다.

미혼일 뿐 아니라 여성의 몸으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기꺼이 내어놓은 김선미 씨(27세)의 용기와 효심, 직원에 대한 동료애로 인해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은 감동했다.

게시판 조회수는 회사 전체 직원수에 가까운 2,000여회를 기록했고 순식간에 수백 개의 격려와 위로의 내용을 담은 댓글이 달렸다.

이어 모금운동이 전개됐다.

서울과 포항, 광양 그리고 전국 100여개 현장에서 사랑의 모금운동이 시작됐다. 김씨의 사연이 알려진지 열흘만인 7월 7일 5,0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한수양 사장은 10일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 지난 6월 29일 실시한 간이식 수술 후 입원 중인 김씨와 부친 김용오 씨(49세)를 위로하고 쾌유를 빌었다.

한 사장은 “30여년 직장생활동안 요 며칠처럼 포스코건설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때가 없었다”며 “선미 씨의 가룩한 효심과 온정으로 하나 된 회사 임직원들의 넉넉한 마음가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마이데일리 2006. 7. 11



어머니 살리려고 이 악물고 뛰었죠



“어머니가 건강해지신다는데 무슨 일인들 마다하겠습니까.”

이희원 씨(26)는 13일 위독한 어머니에게 자신의 간 65퍼센트를 떼어드린 행을 ‘자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공학도로 호주에서 유학생할 막바지를 준비하던 이씨는 지난해 말 “어머니(51)가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안될 만큼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귀국했다. B형 간염과 간경화로 20여 년간 투병 중이던 어머니는 복합적인 질병과 치료과정에 따른 피로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있었다. 이씨는 가족 중

어머니와 혈액형이 일치하고 간질환이 없는 사람은 자신뿐이었기에 당장 간을 떼어 드리려 했다. 하지만 고된 유학생 활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지방간 증세가 있는 등 이씨의 간도 상당히 나빠져 있었다.

이씨는 병원측의 지시에 따라 6개월간 매일 조깅 등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자신의 건강부터 찾았다. 85kg이던 체중도 77kg까지 감량했다.

마침내 지난달 28일 이씨는 자신의 간 65퍼센트를 어머니께 이식하는,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모자 모두 건강했다. 이씨는 수술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입원실로 옮겼다. 이씨는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지난 8일 퇴원했다. 어머니도 14일 퇴원할 예정이다.

“아들이 말할 수 없이 고맙고 대견스럽다”는 어머니 옆에서 이씨는 “자식 된 입장에서 누구든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멋쩍어했다.

현재 취업준비 중인 그는 “수술 때문에 지원했던 몇 군데 회사의 최종 면접을 못 봤다”며 “얼른 취직해 어머니께 남은 효도를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관순 기자
경향신문 2006. 7. 13